

■ 최신 해외정보 - 에티오피아 ■

글로벌 의류업체의 manufacturing hub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난 3월 13일 Tesco가 에티오피아에서 의류사업을 확정하고, 생산량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의류제조업체인 H&M도 에티오피아에서 생산기반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의류업체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료수입국의 지위에 있던 아프리카가 의료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의류업체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곳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남아시아였지만, 특히 유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특히, 북아프리카)로 의류업체의 대이동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 의류 트렌드가 fast fashion(빠른 생산 및 빠른 소비)인 만큼 주요 소비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의 위치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게 충분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프리카가 새로운 manufacturing hub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인도, 파키스탄, 중국 시장이 그랬듯이 글로벌 제조업체의 윤리적 이슈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